

#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의 커뮤니티 공간화 연구\*\*

- WELL Community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

A Study of Using the Idle Space as a Community Space in Subway Stations in Seoul

- Based on the WELL Community Standard -

**Author** 박진슬 Park, Jin-Seul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김석경 Kim, Suk-Kyung / 정회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장, 실내건축학과 교수, Ph.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space planning elements for creating a user-centered community space that utilizes idle spaces in subway stations. For this, observation analysis with site visit using WELL Community certification, a space planning guideline for users' well-being, was conducted on the case of creating a community space by utilizing idle spaces in subway stations. IWBI's WELL Community certification is a guideline for evaluating spatial planning factors that promote user well-being in all public spaces, including residential and office spaces. Through the analysis frame applying the WELL Community, eight cases of community space in subway station that are continuously in operation in 2022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Pedestrian - Scale design of Movement, Preservation of Scenic views of Mind, Social space and Community confidence of Community were generally satisfied. However, Urban Agriculture of Nourishment, Public space of Community, and Restorative Blue space of Mind was not satisfied enough. In the future, subway idle space needs to have design elements such as facade design, plant and public art in a location where users can easily see, and open layout to observe each other. In terms of space func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 public space that supports social interaction such as gallery, walking trail related to psychological recover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t is more proper to comprehensively utilize idle spaces scattered in the station rather than using only certain idle space in subway stations and to have green spaces.

**Keywords** 웰 커뮤니티 인증, 지하철 유휴공간, 커뮤니티 공간  
WELL Community Standard, Idle Space in the Subway Station, Community Spac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며, 지하철 역사 상가 내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지하철 6, 7호선 상가의 공실이 2년 가까이 지속되는 등 공실의 장기화가 심화되었다(Son, 2021).<sup>1)</sup>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유휴공간을 개인 창고,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도의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접근성, 공공성 면에서 뛰어난 지하철 유휴공간의 특성을 활용하고자 신진 예술가를 위한 문화예술공간 및 주민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의 제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지하철 역사를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문화예술철도 사업과 지역성을 반영해 역사 내부를 재조성하는 테마 역사 사업을 시작했다(Seoul, 2016).<sup>2)</sup>

하지만 테마역사사업은 부실한 관리, 시민들의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 등과 같은 이유로 낮은 시민 호응도를 보였으며(The Seoul Institute, 2018),<sup>3)</sup> 실제로 운영을 종료한 테마 역사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kimskyu@yonsei.ac.kr

\*\* 본 연구는 2021-22년도 연세미래선도연구(3차),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한국연구재단 BK21교육연구사업 Co-Space 4.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2021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1) Son, J. S. (2021, November 10). Most of the shopping malls in subway lines 6 and 7 are vacant for 2 years. Biz World. Retrieved February 08, 2022, from <http://www.bizw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86>

2) Seoul (2016, December 7). A trip to 'Theme Subway Station' with a single transportation card. Seoul in my hands. from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048411>

3) The Seoul Institute (2018). Measures to utilize idle space at subway stations (2018-CR-01-08). The Seoul Institute. <https://www.si.re.kr/node/62219>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Park, 2021).<sup>4)</sup>

Lee(2020)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은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으며, 지하 공간의 특성상 기후변화에 구애받지 않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지하철 역사는 단순히 교통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 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능을 수용하는 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유휴공간을 누구나 쉽게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행태를 수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도는 적합하다.

따라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때에는 단순한 공간 조성이나 사용자의 행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커뮤니티 공간의 사용자의 건강 및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 디자인 계획을 고려하여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주거 및 사무 공간 내부와 일반적인 공용공간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공간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건강 및 웰빙을 지원하는 IWBI 협회의 웰 커뮤니티(WELL Community) 인증 목적 및 평가 방향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하철 유휴공간의 커뮤니티 공간화 시도가 지적받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유의미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건물 및 공용 공간 가이드라인인 웰 커뮤니티(WELL Community)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의 커뮤니티 공간화 사례를 평가하여 향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의 공간 계획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흐름

분석틀 설정을 위하여 공간 사용자 중심 가이드라인인 웰 커뮤니티(WELL Community)의 평가 항목 중, 지하철 유휴공간 공간과 적합하며 공간 사용자의 행태와 연관되어 공간 계획 요소로서 제안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사례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의 활용 사례 중 코로나 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활용 사례를 선별하고, 선별된 사례를 분석 틀에 맞추어 평가하여 절반 이상의 평가 항목 점수를 달성한 역들을 대상으로 상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사례 간 공통적인 공간 계획 요소를 도출하여, 향후 지하철 유휴공간의 커뮤니티 공간화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 2. 문헌 고찰

### 2.1. 커뮤니티 공간

Jeong & Lee(2010)는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 좁은 의미로는

공동체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넓은 의미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편의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했다. 더 나아가 커뮤니티 시설과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이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Seo & Lee(2013)는 커뮤니티의 공간적 범위가 지리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언급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공공시설을 재분류하였다. 이후, 커뮤니티 지원센터는 공공시설의 개념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내렸다.

Lee(2021)는 공공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의 특성들이 유사하다고 밝히며, 지역 커뮤니티 공간은 공익을 위해 제공되는 문화관람, 체육, 복지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선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을 지하철 역 내의 공간을 활용하여 지하철 역사 이용객이 비용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띠는 공간이자, 문화 관람, 복지 서비스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태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 2.2. 웰 커뮤니티(WELL Community)의 특성 및 필요성<sup>5)</sup>

국제웰빌딩협회(International WELL Building Institute, 2021)에서 제안하는 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공간 사용자를 중심으로 개발된 공간 프로그램이다. 가이드라인 내에는 온열환경, 공기질과 같은 실내 환경의 질과 관련된 항목인 공기(Air), 빛환경(Light), 열환경(Thermal Comfort), 소음(Sound), 자재(Materials), 물(Water)부터, 사용자의 사회적 교류 및 신체 활동과 같은 행태와 관련된 항목인 움직임(Movement), 영양(Nourishment), 심리안정(Mind), 공동체(Community)까지 11개의 카테고리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카테고리 내에는 사용자의 웰빙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적인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웰 커뮤니티는 실내 공간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머무르는 모든 공적 공간을 평가 범위로 정의하였다.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동선 배치,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는 자연 요소 배치 등의 공간 계획 평가 항목을 통해 공간 사용자의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공적 공간을 목표로 한다.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은 공간의 실 사용자인 시민들과 해당 공간의 테마를 공유하지 않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았다(The Seoul Institute, 2018).<sup>6)</sup> 다시 말해, 실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커뮤니티 공간이 계획되었다. 웰 커뮤니티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공간 계획을 제

4) Park, J. K. (2021, February 17). Seoul Transportation Corporation on the edge of the cliff... The old subway station remodeling project has also been put on hold. Korean economy.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171545i>

5) International WELL Building Institute (n.d.). WELL Community Standard. In WELL Community standard website. Retrieved January 08, 2022, from <https://v2.wellcertified>.

6) The Seoul Institute (2018). Measures to utilize idle space at subway stations (2018-CR-01-08). The Seoul Institute. <https://www.si.re.kr/node/62219>

〈표 1〉 지하철 유휴공간 활용 사례의 유형별 분류

사진					
유형	유형 1. 단순 휴게 공간	유형 2. 전시 - 휴게 공간	유형 3. 커뮤니티 공간	유형 4. 조형물 전시	유형 5. 메트로팝
역사 이름	오목교역 (이미지 출처 : 저자 촬영)	안국역 (이미지 출처 : 저자 촬영)	영등포시장역 (이미지 출처 : Yeongdeungpo Market station, n.d.)	삼각지역 (이미지 출처 : Ha, 2010)	상도역 (이미지 출처 : 저자 촬영)

안하는 가이드라인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의 계획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 앞서 지적받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웰 커뮤니티를 해당 공간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틀의 기초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웰 커뮤니티 공간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특히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의 특성과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공간 계획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본 연구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된 웰 커뮤니티 공간 가이드라인 내 움직임(Movement), 심리 안정(Mind), 공동체(Community) 카테고리들을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해당 카테고리 내 평가 항목을 공간 내 적용하는 경우, 커뮤니티 공간 사용자의 웰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 움직임(Movement)

움직임(Movement) 카테고리는 공간 내 사용자의 신체 활동 증진 및 좌식 생활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사용자의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평가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당 카테고리 내에는 보행을 장려하기 위해 보행자의 스케일에 맞는 디자인을 장려하는 보행 동선 디자인(Pedestrian-Scale Design) 항목, 효율적인 길찾기를 지원하는 공간 내 동선 안내(Community Wayfinding) 항목 등 공간 적용 시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심리 안정(Mind)

심리 안정(Mind) 카테고리는 공간 내 사용자의 정신적인 행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체적인 건강 외에도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안녕 역시 사용자의 전반적인 웰빙에 일조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해당 카테고리 내에는 심리 회복을 도모하는 자연 요소 및 인공 요소의 도입을 평가하는 회복적 공간(Restorative spaces) 평가 항목 등 공간 적용 시 사용자의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공동체(Community)

공동체(Community) 카테고리는 공간 사용자들 간의 교류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적 규범과 같은 사회 공동체에 접근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사용자의 질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해당 카테고리 내에는 구성원 간 교류를 위한 공간의 제공을 다루는 사회적 공간(social space) 항목, 지역성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평가하는 지역성(celebration of place) 항목 등과 같이, 공간 적용 시 사용자의 지역적 특색 경험 및 타인과의 교류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2.3. 선행연구 고찰

Kim & Choi(2011)은 2호선 내 지하철 유휴공간의 유형들을 분류하고, 해당 유휴공간의 위치, 평균 면적, 출입구와의 거리 여부 등 지리적인 요건에 따른 활용도를 분석하여, 기존에 사용되는 시설 및 업무 공간, 개표구의 재배치를 통해 유휴공간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는 유휴공간의 활용 사례가 아닌 비어있는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공간 내 디자인 및 공간 프로그램이 아닌, 유휴공간의 입지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Lee & Woo(2019)는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례인 영등포역, 경복궁역 등을 방문 답사하였으며, 해당 역들을 접근성, 활용성, 지역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역에서 지역성은 낮게 접근성 및 활용성은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는 유휴공간의 활용 사례들을 구체적인 공간 요소가 아닌, 접근성, 활용성과 같은 공간 특성으로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 3. 연구방법

### 3.1. 조사 대상 선정

#### (1) 문헌 조사를 통한 사례정리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의 커뮤니티 공간화 사업에 참여한

〈표 2〉 지하철 유휴공간 활용 사례 분석을 위한 분석틀 설정

범주	효과	평가 항목	평가 항목 재정의
Movement	신체활동 장려, 적극적인 생활 촉진 및 좌식 행동 감소	walkability	지하철 출구부터 유휴공간 영역까지 연속적인 보도가 조성되어 있는가?
		pedestrian-scale design	유휴공간 영역 혹은 영역까지의 이동 통로 내 파사드가 조성되어 있는가?
		community wayfinding	이용자의 길찾기를 도울 수 있는 도구 및 해당 공간의 안내 간판이 존재하는가?
Mind	개인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긍정적으로 형성	restorative green spaces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가?
		restorative built spaces	미술관, 기도실, 창소, 역사적 공간, 광장, 산책로와 같은 인공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가?
		restorative blue spaces	친수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가?
		preservation of scenic views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는 자연 혹은 인공적인 요소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가?
Community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social spaces	불특정 다수가 모여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는 장소가 제공되고 있는가?
		public spaces	개인 소유의 사업자 공간과 해당 사례 공간이 연계되어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preservation and rehabilitation	역사적 기념 공간을 보존했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빈 공터를 활용하였는가?
		celebration of place	해당 지하철 역사가 위치한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디자인이 반영되어 있는가?
		public art	공공 미술을 접할 수 있는가?
Nourishment	좋은 먹을거리의 제공	community confidence	개방적인 공간으로, 서로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디자인인가?
		urban agriculture 1 - provision	역사 내 도시 농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했는가?

사례를 정리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업은 ‘서울테마역사 사업(The Seoul Institute, 2018)<sup>7)</sup>’, ‘문화예술철도 사업(Sung, 2020)<sup>8)</sup>’, ‘메트로팜(Kim, 2020)<sup>9)</sup>’ 3가지 사업이었으며, 이에 참여한 역들과 추가적인 인터넷 조사를 통해 복합문화공간, 창업 공간 등 앞선 선행연구 고찰에서 정의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총 32개의 사례를 추출하였다.

#### (2) 유형별 분류

이후 해당 역사 관련 인터넷 기사 및 서울시 미디어 허브 등과 같은 서울시 홍보 자료를 참조해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에 참여한 역사들을 정리하고 활용 사례의 공간 목적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사례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1) 특정한 테마 없이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한 단순 휴게 공간 (2) 특정 테마 및 컨셉을 담아 휴게 공간을 조성한 전시 - 휴게 공간 (3) 공연이나 창업 공간 등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 (4) 역사 내 벽면에 판넬 및 트릭 아트를 설치한 조형물 전시, (5) 유휴공간을 농장으로 활용한 메트로팜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중 조형물 전시 유형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커뮤니티 공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유형은 제외하였으며, 메트로팜 유형 중 상도역을 제외한 충정로역, 답십리역 등 다른 역사의 사례들은 작물 육성을 목적으로하는 농장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 본 연구에서 정의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메트로팜 유형 중 상도역을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유형별로 구분된 사례의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여, 공간 운영이 중단, 혹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역사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가산디지털단지역, 경복궁역, 녹사평역, 미아사거리역, 반포역, 상도역, 상월곡역, 쌍문역, 신도림역, 안국역, 영등

포시장역, 오목교역, 왕십리역, 종각역, 천왕역, 천호역, 청담역, 충무로역, 흑석역 총 19개의 역사가 정리되었다.

### 3.2 분석틀 설정 및 사례 분석

#### (1) 분석틀 설정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의 특성 및 공간 계획 방향성 모색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사례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움직임(Movement), 심리 안정(Mind), 공동체(Community) 카테고리 내 평가 항목 중 사용자 설문조사(Post-Occupancy Surveys) 항목과 같은 유지, 보수와 관련된 항목 및 공간 내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에 관한 항목들을 제외하였으며, 보행성(Walkability), 회복적 녹지 공간(Restorative green space), 지역 신뢰성(Community confidence)와 같은 물리적 공간 계획 요소와 관련된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추가로 영양(Nourishment)의 도시 농업(Urban Agriculture 1 - Provision)항목은 도시 농업 공간의 제공을 통한 작물 육성을 위한 공간의 제공 외에도 구성원의 사회 참여 및 구성원들간 상호 교류 등을 본 연구에서 정의한 커뮤니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역시 평가 항목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농업 항목 역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여 해당 항목을 분석틀에 포함하였다. 추출한 항목을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 활용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웰 커뮤니티가 다루는 범위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의 활용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평가 항목의 목적 및 평가 기준을 기초로 구체적 평가 기준을 재정의하여 <표 2>와 같은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 (2) 현장 답사

앞서 정리한 19개의 역사의 답사를 2022년 1월 10일부터 1월 14일 총 5일간 진행하였다. 답사를 통해 운영 종료 여부 및 코로나 19로 인한 사용 불가 여부를 확인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해 해당 공간의 접근을 차단한 역사를 제외하고 답사 당시 운영 중인 가산디지털단지역, 경복궁역, 녹사평역, 상도역, 신도림역, 안국역, 오목교역, 왕십리역, 종각역, 천왕역, 청담역, 충무로역 총 12

7) The Seoul Institute (2018). Measures to utilize idle space at subway stations (2018-CR-01-08). The Seoul Institute. <https://www.si.re.kr/node/62219>

8) Sung, H. K. (2020, May 10). 14 subway stations in Seoul will be reborn as cultural and artistic stations. Seoul Economy.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P4YKMOQ>

9) Kim, J. H. (2020, October 21). What do the vegetables grown at the subway station taste like? 5 “Metroparm” places. Seoul in my hands. from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99498>

개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해당 역사들에 대해 지하철 역사 내 활용된 공간마다 약 20장씩 수집한 사진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 틀을 활용해 각 공간 내 평가 항목의 반영 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현장 답사 시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공간 내 프로그램이 예약제로만 운영되어 접근할 수 없었거나, 해당 진행이 중단되어 공간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간 활용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천왕역, 신도림역과 같이 예약제로 운영되는 역사는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활용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 외 역사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공식 SNS 및 인터넷 기사를 기반으로 해당 공간 내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및 모습을 파악하였으며, 현장 답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틀을 기반으로 한 공간 분석을 진행하였다.

#### (3) 사례 분석

문헌 고찰 및 현장 답사를 통한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해당 공간을 분석 틀에 따라 평가하고, 성공적인 지하철 유휴공간의 커뮤니티 공간화 사례 간 공통적으로 반영한 공간 계획 요소를 도출하였다. 웰 커뮤니티내 각 평가 항목의 목적 및 기준을 기반으로 지하철 유휴공간이라는 공간적 특성에 따라 재정의한 평가 항목을 충족, 미흡, 미충족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사례를 평가하였다. 이는 웰 커뮤니티에서 제안하는 공간 계획 요소를 평가 항목의 목적에 맞게 적용한 사례도 존재하였지만, 이를 미흡하게 충족한 사례 역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가령, 공간 내 동선 안내(Community wayfinding) 항목의 목적은 개인이 물리적인 환경 내에서 본인의 위치를 인지하고, 본인의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목표하는 공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몇몇 사례의 경우, 간판은 설치하였지만, 쉽게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길 안내를 유도하는 디자인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평가 항목에서 제안하는 공간 계획 요소를 달성하였으나, 간판만으로 평가 항목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흡하게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평가를 달성, 미달성 두 가지 단계만으로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 항목의 의도와 조건을 충분히 달성한 경우에는 ●, 평가 항목의 의도와 조건을 미흡하게 달성한 경우에는 △, 해당 항목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X로 표기하여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영등포시장역, 녹사평역, 흑석역, 종각역, 경복궁역, 상도역, 충무로역, 청담역은 절반 이상의 평가항목을 달성하여 사용자 중심의 지하철 역사 내 유휴 공간 활용 사례로 간주하였다. 해당 역들을 대상으로 실제 답사 및 인터넷 문헌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틀을 기반으로 한 상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코로나 19 사태가 완화되어 공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8개의 역사를 재조사하였고, 그중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 상도역은 2022년 10월 14일 재답사를 진행하였다.

## 4. 분석 결과

### 4.1. 개별 유휴공간 분석 결과

개별 유휴공간의 분석 결과는 지하철 역사 명칭의 한글 순서대로 서술하였다. 출처를 표기한 사진 외 모든 사진은 필자가 직접 촬영하였다. 해당 사례가 특징적으로 달성한 평가항목의 반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를 사례별 표에 첨부하였다.

#### (1) 경복궁역

경복궁역은 시민들이 대관하여 전시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인 메트로 미술관과 상시 운영되는 미디어 아트 전시 공간인 광휘원을 운영하고 있다. 움직임(Movement)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간을 직선상으로 연이어 배치하여 이용객의 보행성(Walkability)을 증진시켰으며, 경로 내부 보행자 스케일에 적합한 크기의 파사드의 연속적 변화를 통하여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표 3>의 좌측 상단의 사진과 같이 경복궁 역사 내 유휴공간의 활용 공간인 광휘원 및 메트로 미술관을 직선으로 배치하면서 연속적인 보도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직선의 이동 경로 내 <표 3>의 우측 상단의 사진과 같이 공공 미술과 관련된 작품들이 동선에 따라 연속적으로 배치되면서, 보행자의 스케일에 맞추어 파사드가 변화하였다. 역사 내 전반적인 활용 공간 소개 및 약도 안내의 존재로 길찾기를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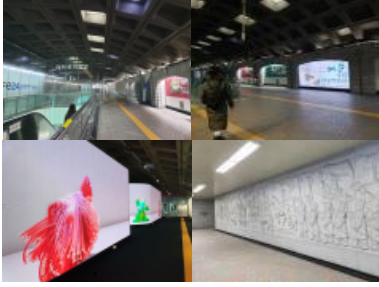
심리 안정(Mind)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녹색 식물 및 수변 공간 등의 자연 요소는 부재하였으나, <표 3>의 좌측 하단의 사진의 광휘원의 디지털 파사드 등과 같은 공공 미술을 활용한 인공적인 공간의 배치를 통하여 심리적인 회복을 도모하였다. 메트로 미술관 및 광휘원 등의 공공 미술을 통하여 심리 안정(Mind) 카테고리에서 제안하는 회복적 인공 공간(Restorative built space)을 제공하였다.

공동체(Community)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공 미술의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경복궁’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테마를 공간 내부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미술관의 테마를 활용하여 공공 미술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해당 공간은 열려 있어 누구나 미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었다. <표 3>의 우측 하단 사진과 같이 주변 지역인 경복궁의 전통적인 특색을 활용하여 벽돌 재질 및 아치형의 파사드 등을 공간 내부 디자인에 적용하였고, 벽이 없는 열린 공간으로 개방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경복궁역은 <표 11>과 같이 전체 14개 항목 중 8.5개의 항목을 충족하였다. 공간 안내 사인(sign)은 설치하였지만 해당 공간까지 쉬운 길찾기를 지원하는 디자인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임(Movement) 카테고리의 공간 내 동선 안내(Community Wayfinding) 항목을 미흡하게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3〉 경북공역

구분	내용
역 이름(개관년도)	경북공역(2005)
공간 목적	전시 예술 공간
사진	 <p>좌측 상단 : Movement - Walkability 우측 상단 : Movement - Pedestrian-scale design 왼쪽 하단 : Mind - Restorative built space 우측 하단 : Community - Celebration of place</p>

## (2) 녹사평역

녹사평역은 용산 공원과 연계된 관련 사업 홍보 공간 및 실내 정원 등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하철 이용객에게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였다.

움직임(Movement)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유휴 공간의 활용 구역 간의 이동 경로 활용 및 쉬운 길찾기를 지원하여 공간 내 사용자의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유도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유휴 공간 활용 구역마다 연속적인 보도를 조성하였으며, 이동 경로 내 서로 다른 작가의 공공 미술 작품을 설치하였다. 이는 보행자 스케일에 맞추어 파사드가 변화하는 보행 동선 디자인 (Pedestrian-scale design)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표 4>의 좌측 상단의 사진과 같이 각 공간별 소개, 현재 위치 및 타 공간으로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 내 전반적인 활용 공간 소개 및 약도 안내가 곳곳에 존재해, 관련 공간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어 길찾기를 지원하였다.


심리 안정(Mind)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표 4>의 우측 상단의 사진과 같이 ‘정원’의 테마를 적용하여 해당 공간 내에 자연 요소를 활용한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였다. 이는 평가 항목에서 언급하는 공간 내 사용자에게 식물 및 인공적 공간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였다. 지하 1층에는 단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 광장과 유사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공간 내에서 쉽게 식물을 조망할 수 있어 직접적, 간접적인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였다.

공동체(Community)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용산 기지’라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공간과 <표 4>의 좌측 하단의 사진과 같이 경로 내 연속적으로 공공 미술을 배치하였다. 또한 <표 4>의 우측 하단의 프로그램 진행 사진과 같이 시민들에게 가드닝 (gardening)을 체험 공간을 배치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공적 공간을 통해서 사회적 교류를 장려하였다. 이는 지하 1층의 공간과 지하 4층의 세미나 공간을 통해 구현하였으며, 공간 내 사용자들이 유휴 공간 내 범죄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당 공간을 개방적인 열린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녹사평역은 <표 11>과 같이 전체 14개 항목 중 11개 항목을 충족하였다.

〈표 4〉 녹사평역

구분	내용
역 이름(개관년도)	녹사평역(2019)
공간 목적	공공 미술 및 실내 정원 제공 - 실내 정원, 관련 프로그램 진행
사진	 <p>좌측 상단 : Movement - Community wayfinding 우측 상단 : Mind - Restorative green space 좌측 하단 : Community - Public art 우측 하단 : Community - Social space (이미지 출처 : Lee, 2019)<sup>10)</sup></p>

## (3) 상도역

상도역은 지하철 유휴공간을 도시 농업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사업인 ‘메트로팜’의 일환으로, 유휴공간 내 친환경 농장을 조성하였다. 다른 메트로팜 사례와는 다르게, 유휴공간 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움직임(Movement)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역사 외부부터 해당 공간까지 연속적인 보도가 설치되어 사용자의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동 경로 바닥에 해당 유휴공간을 안내하는 사인(sign)이 부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동 경로 내 변화하는 파사드와 같은 디자인 요소는 부재했다.

영양(Nourishment)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표 5>의 좌측 상단의 사진과 같이 유휴 공간 내 스마트팜을 배치하고 공간 내 식재료 재배 및 구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도시 농업 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한 영양 식단에 대한 접근을 목표로 하는 도시 농업 (Urban Agriculture 1 - Provision)항목의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였다.

심리 안정(Mind)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친수 공간을 같은 자연 요소를 배치하지는 않았으나, <표 5>의 우측 상단의 사진과 같이 녹지 공간이 존재하며, 농작물 재배 공간을 해당 공간 내 어디서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긍정적 공간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활용 공간 내 <표 5>의 우측 하단 사진과 같이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는 “팜 트리 공간”을 배치하였다. 이는 회복적 인공 공간(Restorative Built space)에서


10) Lee, S. J. (2019, March 14). Noksapyeong Station, Green Art Space with Gardens and Art. landscapetimes.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2259>

언급된 공간 중 하나인 ‘광장’과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체(Community)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교류할 수 있는 공적 공간 및 공간 내 개방감 확보를 통해서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였다. 특히, 해당 공간은 <표 5>의 좌측 하단 사진과 같이 저연령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및 휴게 공간이 존재하여, 타 역사에 비해 다양한 세대의 방문을 유도하였으며, 높은 천정과 및 가벽의 부재 등을 통해 공간 사용자 간의 쉬운 관찰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상도역은 <표 11>과 같이 14개 항목 중 9개 항목을 충족하였다.

<표 5> 상도역

구분	내용
역 이름(개관년도)	상도역 (2019)
공간 목적	스마트팜을 통한 도시 농업 시도 - 카페, 실내 수직농장, 체험 프로그램 진행 공간
사진	 <p>좌측 상단 : Nourishment - Urban agriculture 우측 상단 : Mind - Restorative green space 좌측 하단 : Community - Social space(for child) 우측 하단 : Community - Social space</p>

#### (4) 영등포시장역

영등포 시장역은 문화예술철도 사업을 시행한 첫 번째 역으로, 라운지 및 예약제 문화 공간 제공을 통해 유휴공간을 활용하였다. 단, 방문 당시 각종 방송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Creative 샘은 운영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해당 공간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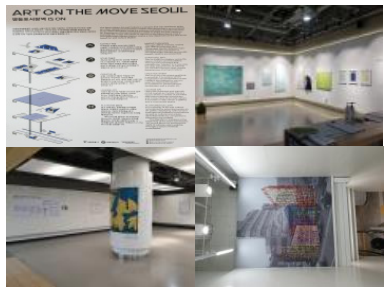
움직임(Movement)카테고리의 측면에서는 유휴 공간 간의 연속적인 공간 배치와 동선 경로 내 변화하는 파사드를 활용하여 신체 활동을 도모하였다. <표 6>의 좌측 상단 약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하철 탑승구에서 역사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까지 동선 배치가 유기적으로 이어져 연속적인 보도를 조성하였으며, 이동 경로 상에 영등포 시장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이 파사드에 적용되고 미술 작품들이 배치되어 보행자의 스케일에 적합한 디자인을 반영하였다. 특히 변화하는 파사드가 일종의 길찾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지하철 역사 내 곳곳에 <표 6>의 좌측 상단의 약도와 같은 현재 위치 및 각 층별 조성된 공간에 대한 약도와 소개가 담긴 안내 사인(sign)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공간 별 안내 간판이 갖추어져 쉬운 길찾기를 지원하였다.

심리 안정(Mind)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표 6>의 우측 상단 사진과 같이 ‘Lounge 사이’ 영역 내 출입이 자유로운 갤러리 공간을 배치하여 공공 미술 및 녹색 식물에 대한 조망을 통한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였다. 녹지 및 친수 공간과 같은 자연적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웰 커뮤니티에서 제안하는 심리적 회복을 위한 인공적 공간의 종류 중 하나인 갤러리 공간이 제공되어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였으며, 동시에 배치된 식물, 공공미술과 같은 회복적 요소에 대한 조망이 가능했다.

공동체(Community) 카테고리의 측면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Lounge 사이’, ‘Market 마당’과 같은 공간을 통해 사회적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표 6>의 우측 하단 사진과 같이 영등포 시장이라는 지역적 특색에 맞추어 ‘시장’과 관련된 공공미술을 에스컬레이터, 파사드 등 역사 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표 6>의 좌측 하단의 “Market 마당” 사진과 같이 모든 공간이 개방적인 공간으로, 공간 내 사용자 관찰에 용이한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영등포시장역은 <표 11>과 같이 총 14개의 평가항목 중 10개의 항목을 충족하였다.

<표 6> 영등포시장역

구분	내용
역 이름(개관년도)	영등포시장역(2020)
공간 목적	공공 미술을 통한 역사 개선 - 공간 예약, 카페, 갤러리, 행사 진행 공간
사진	 <p>좌측 상단 : Movement - Community wayfinding 우측 상단 : Mind - Restorative built space 좌측 하단 : Community - Community confidence 우측 하단 : Community - Public art</p>

#### (5) 종각역

종각역은 유휴공간 내 실내정원을 조성하고 정원 주변에 ‘종로 청년숲’을 설치해 청년 사업가를 위한 플라마켓을 운영하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움직임(Movement)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유휴공간의 활용 공간까지의 연속적인 보도 조성을 통해 보행성(walkability)을 도모하였으며, 동선에 종각역과 관련된 판넬 전시를 통해 보행자의 스케일에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종각역의 유래 및 광화문 광장 리모델링 등 주변 지역의 역사 및

특색과 관련된 판넬을 전시하여 동적 파사드(dynamic façade)를 반영하였다.

심리 안정(Mind)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표 7>의 우측 상단 사진과 같이 녹사평역과 유사하게 ‘정원’이라는 테마를 활용하여 녹지 공간 및 긍정적 공간에 대한 조망을 제공하고, 정원 내부에 좌측 상단의 사진과 같이 산책로와 같은 공간을 설정하여 사용자의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였다. 특히, 산책로는 웰 커뮤니티에서 언급한 심리적 회복을 위한 인공적 공간의 종류 중 하나이며, 벽, 기둥 등이 없는 개방감 있는 오픈 스페이스로 쉽게 조망이 가능한 공간이었다.

공동체(Community)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우측 하단 사진과 같이 사업자 공간인 종로 서적과 정원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개인 사업자 공간을 공적 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좌측 하단의 사진과 같이 ‘종로 청년 숲’공간을 배치하여,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되어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개방적 교류 공간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교류 및 자본에 대한 접근을 도모하였다. 공간의 양쪽에는 계단형 의자가 배치되어 정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사회적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공간이 오픈 스페이스의 형태로 제공되어 공간 사용자 간의 관찰 및 감시를 통한 범죄 불안감 완화를 지원하였다. 특히 종각역은, 타 역사와 차별적으로 종로 서적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타입의 공적 교류 공간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종각역은 <표 11>과 같이 14개의 평가항목 중 9.5개의 평가항목을 충족하였다. 공간 안내 사인(sign)은 설치하였지만, 해당 공간까지 쉬운 길찾기를 지원하는 디자인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임(Movement) 카테고리의 공간 내 길찾기(Community Wayfinding)항목을 미흡하게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7> 종각역

구분	내용
역 이름(개관년도)	종각역(2019)
공간 종류	태양의 정원, 종로 청년숲 - 실내정원 및 플리마켓
사진	 <p>좌측 상단 : Mind - Restorative green space 우측 상단 : Mind - Restorative built space 좌측 하단 : Community - Social space 우측 하단 : Community - Public space</p>

#### (6) 청담역

청담역은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정화를 목적으로, 650m의 긴 통로를 4가지 테마에 맞춘 조경 공간을 제공하였다.

움직임(Movement)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4가지 테마에 따라


파사드의 디자인을 변화하여 보행자의 스케일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직선 상의 긴 통로를 활용하여 연속적인 보도를 조성하여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였다. 청담역 역시 다른 역사와 유사하게 조경 공간을 제공하였는데, <표 8>의 좌측 상단 사진의 약도와 같이 별, 못, 뜰, 숲 4가지 테마에 맞추어 통로 내 조경이 변화하여 동적 파사드(dynamic façade)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기존 청담역의 긴 통로였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표 8>의 우측 상단의 사진과 같이 이동에 용이한 직선의 연속적인 동선을 사용하였다.

심리 안정(Mind)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표 8>의 좌측 및 우측 하단 사진과 같이 조경을 활용하여 녹지 및 친수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열린 통로를 활용하여 조경 공간에 대한 시야 및 조망을 확보하여 공간 내 사용자의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였다. 또한 직선 상으로 연속적으로 배치된 공간은 웰 커뮤니티에서 제안하는 회복적 인공 공간의 종류 중 하나인 산책로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동체(Community)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직선의 공간이 열린 공간으로 디자인되어 서로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당 공간 내 사용자의 범죄 불안감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그 외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적 공간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디자인 등 사회적 교류 및 공동체와 관련된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담역은 <표 11>과 같이 총 14개의 평가항목 중 8.5개의 평가항목을 충족하였다. 공간 안내 사인(sign)은 설치하였지만, 해당 공간까지 쉬운 길찾기를 지원하는 디자인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임(Movement) 카테고리의 공간 내 길찾기(Community Wayfinding)항목을 미흡하게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8> 청담역

구분	내용
역 이름(개관년도)	청담역 (2020)
공간 종류	미세먼지 프리존 - 실내 조경
사진	 <p>좌측 상단 : Movement - Pedestrian scale design 우측 상단 : Movement - Walkability 좌측 하단 : Mind - Restorative blue space 우측 하단 : Mind - Restorative green space</p>

#### (7) 충무로역

충무로역은 2004년 개관하였으며, 극장 제공, 영상 관련 장비 대여 및 영화 관련 프로그램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표 9>의 우측 하단의 다이어그램처럼 영화를 테마로 한 다목적의 공간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 중이었다.


움직임(Movement) 카테고리의 측면에서는 <표 9>의 좌측 상단의 사진과 같이 연속적인 보도로 조성된 ‘영화의 길’이라는 테마에 따라 동적 파사드(dynamic façade)를 적용하고, 유휴 공간의 활용 사례인 ‘오재미동’까지의 쉬운 길찾기를 도모하는 안내 사인(sign)이 잘 구성되어 있어, 공간 내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도모하였다.

심리 안정(Mind) 카테고리의 측면에서는 <표 9>의 우측 상단 사진인 ‘아카이브’ 및 ‘영화의 길’, ‘오재미동 갤러리’ 등을 활용하여 회복적 인공공간을 활용하여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였다. 특히 이는 웰 커뮤니티에서 제안하는 회복적 인공공간의 종류 중 갤러리에 해당하며, ‘영화의 길’은 공간 사용자 뿐만 아니라 단순 이동을 위한 지하철 이용객 역시 쉽게 조망할 수 있어 회복적 요소에 대한 조망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Community) 카테고리의 측면에서는 <표 9>의 좌측 하단의 프로그램 진행 사진과 같이 영화 관련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단체 공간 및 충무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영화’ 테마를 유휴 공간 디자인 곳곳에 적용하여 사회적 교류 및 지역 아이덴티티 강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공간의 목적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간 개방 정도를 조절하였다.

따라서 충무로역은 <표 11>과 같이 총 14개의 평가항목 중 9개의 항목을 달성하였다.

<표 9> 충무로역

구분	내용
역 이름(개관년도)	충무로역(2004)
공간 종류	영화 관련 서비스 제공 - 갤러리, 극장, 교육 진행 공간, 개인별 영상 관람실, 오피스 및 장비 대여
사진	 <p>좌측 상단 : Movement - Pedestrian scale design 우측 상단 : Mind - Restorative Built space 좌측 하단 : Community - Social space(Ohjaemi, n.d.)<sup>11)</sup> 우측 하단 : Space Diagram(Ohjaemi, n.d.)<sup>12)</sup></p>

#### (8) 흑석역

흑석역은 실내 정원 및 역 근처에 위치한 중앙대와 협업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해 유휴공간을 활용하였다.

움직임(Movement) 카테고리의 측면에서는 <표 10>의 좌측 상단 사진과 같이 출구 이동 경로 내 파사드를 활용한 전시 공간

으로 보행자의 스케일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서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유휴 공간 간의 이동 경로 내 연속적인 보도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공간 계획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길찾기를 지원하는 안내 사인(sign) 및 약도와 같은 디자인 요소가 전무하였다.

심리 안정(Mind) 카테고리의 측면에서는 <표 10>의 우측 상단 사진과 같이 정원을 통해서 녹지 및 친수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자연 공간에 대한 조망 및 시야를 확보하여 사용자의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였다. 특히 정원 내 산책로와 유사한 공간을 통해 회복적 인공 공간을 공간 내 배치하여, 정원을 활용한 다각도의 심리적 회복 방안을 활용하였다.

공동체(Community) 카테고리의 측면에서는 <표 10>의 우측 하단 사진과 같이 역 근처의 중앙대학교와 협업하여 창업을 기획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연해볼 수 있는 ‘팝업 테스트 베드’, ‘창업 컨설팅’과 같은 서로 다른 유형의 공간들을 배치하였으며, 개방된 정원을 활용한 공적 공간의 제공으로 다목적의 사용자 간의 사회적 교류를 도모하였다. 또한 예비 창업인을 위한 공간을 제외하고, <표 10>의 좌측 하단 사진과 같이 테스트 베드 및 정원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간에 한해서는 개방적이고 열린 공간 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범죄 불안감 관련 항목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흑석역은 <표 11>과 같이 총 14개의 평가항목 중 10.5개의 항목을 달성하였다. 공간 안내 사인(sign)은 설치하였지만 해당 공간까지 쉬운 길찾기를 지원하는 디자인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중앙대학교가 근처에 위치했기 때문에 창업을 테마로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것은 평가 항목의 목적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공 미술 접근성을 위한 공간은 배치되어 있었으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움직임(Movement) 카테고리의 공간 내 길찾기(Community Wayfinding) 항목, 공동체(Community) 카테고리의 지역성(Celebration of Place)항목, 공공미술(Public art) 항목을 미흡하게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10> 흑석역

구분	내용
역 이름(개관년도)	흑석역(2009 - 실내정원 2020 - 창업 관련 공간)
공간 종류	창업 지원 공간 및 실내 정원 제공 - 실내 정원, 제품 테스트 및 홍보 공간, 예약제 회의 및 교육 공간,
사진	 <p>좌측 상단 : Movement - Pedestrian scale design 우측 상단 : Mind - Restorative green space 좌측 하단 : Community - Social space 우측 하단 : Space usage notice</p>

11) OhJaemi (n.d.). About the theater. In Ohjaemidong website. Retrieved February 21, 2022, from <https://www.ohzemidong.co.kr/theater/intro.php>

12) OhJaemi (n.d.). Introduction. In Ohjaemidong website. Retrieved August 10, 2022, from <https://www.ohzemidong.co.kr/theater/intro.php>

## 4.2. 종합 분석 결과

총 8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분석 틀을 기반으로 평가한 전체적인 사례 분석을 요약하였으며, 평가 항목을 충실히 반영한 경우에는 ●, 평가 항목을 미흡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 평가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X로 표기하였다. 종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움직임(Movement) 카테고리의 공간 간 보도 편의성을 평가하는 보행성(Walkability) 항목, 커뮤니티(Community) 카테고리의 공터 활용 및 역사적 공간 보존을 평가하는 보존 및 재생(Preservation and Rehabilitation) 항목은 모든 사례가 해당 항목을 충족하였다. 이는 모든 사례가 지하철 역사 내부에 조성되어 연속적인 보도가 설치되었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2) 분석 틀 내 대부분의 평가항목은 대체로 높은 달성 정도를 보였다. 평가 항목의 충족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총 14개 중 11개의 항목은 4곳 이상의 지하철 역사가 해당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달성률을 보였던 항목은 움직임(Movement) 카테고리의 보행 동선 디자인(Pedestrian-Scale Design) 항목, 심리 안정(Mind) 카테고리의 자연 경관의 보존(Preservation of Scenic Views), 공동체(Community) 카테고리의 사회적 공간(Social space) 항목, 지역 신뢰성(Community Confidence) 항목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 대다수의 역사가 파사드 디자인에 신경 쓰고, 해당 공간 내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공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집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식물, 녹지 공간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회복적 요소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였으며, 시민들이 부담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관찰 가능한 디자인을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달성률을 보였던 항목은 영양(Nourishment) 카테고리의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 1 - Provision) 항목, 공

동체(Community) 카테고리의 공적 공간(public space) 항목, 심리 안정(Mind) 카테고리의 회복적 수변 공간(Restorative Blue space) 항목이었다.

역사의 구조 및 지역 특성상 종각역을 제외한 7개의 역사는 외부 사업자 공간과의 연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 농업(urban agriculture)의 경우, 절반의 지하철 역사가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었으나 도시 농업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녹지 공간은 갖추고 있지 않아도 대부분의 역사가 식물을 들이는 등의 시도를 보였으나, 물을 활용한 디자인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움직임(Movement) 카테고리의 길찾기(Wayfinding) 항목의 경우 모든 역사가 해당 공간의 표지판을 갖추고 있었으나, 공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영등포 시장역, 녹사평역, 충무로역뿐이었다.

(3) 평가 항목 달성률이 높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의 활용 사례는 11개의 항목을 충족시킨 녹사평역, 10.5개의 항목을 달성한 흑석역 및 10개의 항목을 달성한 영등포 시장역과 9개의 항목을 달성한 상도역이었다. 네 가지 역사는 공공미술을 역사 내부에 적용하였거나 실내정원, 역사적 공간 및 갤러리 혹은 도시 농업 공간을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회복적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또한 상도역을 제외한 다른 세 가지 역사는 역사 내 특정 유휴 공간만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 역사 내부에 퍼져있는 유휴공간들을 테마에 맞추어 함께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도역은 하나의 공간을 활용하였지만, 공간 내 미팅룸, 어린이 교육공간, 카페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였다. 이는 다양한 세대의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활발한 공간의 사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실제로 상도역은 재방문 당시, 교육을 수강하는 자녀세대, 자녀가 교육을 듣는 동안 서로 담소를 나누는 부모 및 조부모 세대 모두가 함께 해당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다기능의 활용 공간은 지하철 역사를 방문하는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용이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11> 분석틀에 따른 사례 분석 결과

역사		경복궁역	녹사평역	상도역	영등포시장역	종각역	청담역	충무로역	흑석역
카테고리	walkability	●	●	●	●	●	●	●	●
	pedestrian-scale design	●	●	x	●	●	●	●	●
	community wayfinding	△	●	●	●	△	△	●	△
nourishment	urban agriculture 1 - provision	x	x	●	x	x	x	x	x
	restorative green space	x	●	●	x	●	●	x	●
mind	restorative blue space	x	x	x	x	x	●	x	●
	restorative built space	●	●	●	●	●	x	●	●
	preservation of scenic views	x	●	●	●	●	●	●	●
community	social space	●	●	●	●	●	x	●	●
	public space	x	x	x	x	●	x	x	x
	preservation and rehabilitation	●	●	●	●	●	●	●	●
	celebration of place	●	●	x	●	x	x	●	△
	public art	●	●	x	●	x	●	●	△
	community confidence	●	●	●	●	●	●	x	●
반영된 항목 합계		8.5개	11개	9개	10개	9.5개	8.5개	9개	10.5개

\* ●: 반영 △: 미흡 X: 반영하지 않음

(4) 녹지 공간을 갖추었던 상도역, 흑석역, 녹사평역, 청담역, 종각역 등의 다섯군데의 역은 8.5개 이상의 높은 평가 항목 달성 정도를 보였다. 이는 녹지 공간을 갖추는 경우, 심리 안정(Mind) 카테고리의 회복적 녹지 공간(Restorative Green space) 항목, 회복적 요소의 조망을 다루는 자연 경관의 보존(Preservation of Scenic View) 항목을 달성할 수 있으며, 주로 정원의 형태로 조성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우연한 만남을 지원하는 공동체(Community) 카테고리의 사회적 공간(Social space) 항목 등 연계되는 항목들을 달성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본 분석결과는 지하철 역사내 유희공간의 면적이나 실내디자인 요소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웰 커뮤니티기준에서 제시하는 각 항목들이 적용되었는지와 적용상의 특성을 주로 파악한 결과이다. 즉, 정성적인 평가를 주로 실시한 결과이며, 웰 커뮤니티기준에서 제시하는 항목의 적용을 계량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하철 역사 내 유희공간의 커뮤니티 공간화 사례를 분석하여, 시민에게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 계획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국제웰빙디자인협회(IWBI)의 사용자 중심의 가이드라인 웰 커뮤니티의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방문 답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코로나 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중인 지하철 역사들을 분석틀에 따라 평가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지하철 유희공간의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지하철역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때에는 이동 경로 내 파사드 디자인, 이용객이 쉽게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식물, 공공미술과 같은 심리적 회복을 위한 요소 설치, 서로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오픈 레이아웃 등의 디자인 요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심리적 회복과 관련된 갤러리, 광장, 산책로 혹은 우연한 만남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지하철 역사의 특정 유희공간만을 단편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역사 내 산재 되어 있는 유희공간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녹지 공간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된 유희 공간을 동일한 테마에 맞추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녹지 공간을 갖추는 경우, 회복적 공간 제공, 회복적 요소에 대한 시야 확보, 사회적 교류 지원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역사 내에서 쉬운 길찾기를 위한 디자인을 반영하는 것과 친수공간의 활용, 도시 농장(urban gardening)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 간판 외에도, 동선 안내와 같은

해당 공간으로 찾아가기 위한 길찾기(wayfinding)를 지원하는 디자인의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 공간 외 친수 공간의 조성 역시 자연 요소를 활용한 것으로, 지하철 사용객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가드닝 및 도시 농업과 같이 자연과의 접촉 및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하철 역사 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유희공간을 활용한 사례의 약 절반 가량이 운영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의 모임이 지양되었기 때문이며, 코로나 19와 같은 시기의 커뮤니티 공간의 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분석한 사례의 공간 운영이 지속적이지 않았고, 공간 내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가 부족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 공간만 남아 있는 경우도 존재했으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참석 방법 및 안내가 부족하여 사용자의 참여가 어려워 보이는 사례들이 존재했다. 가령 녹사평역의 ‘시민 정원사’ 프로그램은 운영 여부, 참여 가능 여부를 공간 내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유선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2022년 이후 운영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영 방식이 모호하고, 프로그램 참여 안내 및 홍보가 부족한 경우 공간의 이용 정도가 저하되고, 이는 또 다른 유희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공간 내 프로그램 운영, 관련 안내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앞서 서술한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와 관련된 소통과 더불어, 공간 내 사용자에게 필요한 공적 정보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웰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파 및 폭염 안내와 관련된 극한 날씨경보(Extreme Weather Warning) 항목과 같이, 공간 내 사용자에게 공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 역시 사용자의 웰빙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들은 모두 정보 소통과 관련된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공간 내 사용자의 스케일에 적합한 미디어 파사드 등 공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 계획 요소의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는 추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완되면 보다 실증적인 연구결과로 활용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사용자의 행태를 기반으로 공간 계획 방향 도출 및 심미적 디자인 요소와 관련된 조사가 보완되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령 청담역의 경우, 적극적으로 조성 및 홍보된 공간은 ‘미세먼지 프리존’이지만 이용이 잦은 공간은 개찰구 근처 휴게 공간이었다. 역사 내 사용자의 행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 내 유희공간의 활용 방향을 설정할 때 해당 공간이 유의미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하철 유희공간의 활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웰 커뮤니티 항목의 적용여부를 정성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

으며,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과 몇개소에 각각의 웰 커뮤니티 항목이 적용되는지의 정량적인 분석은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배제하였다. 추후, 이러한 자료가 추가되어 정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지하철 유휴공간의 활용에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서울 시민에게 공공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와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화 사례를 평가하여 향후 공간 계획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보인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는 한정된 땅 면적을 활용하여 늘어나는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 SOC를 보충하기 위해 ‘시민누리공간 활성화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서울 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공공공간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Seoul, 2019).<sup>13)</sup> 지하철 유휴공간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이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버려지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공공 편의 시설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보인다.

## 참고문헌

- Ha, S. (2010, July 02). Seoul Metropolitan Railway Corporation creates a theme for Norwegian culture and arts in Samgakji station. *NewsWire*.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483217>
- International WELL Building Institute (n.d.). WELL Community Standard. In *WELL Community standard website*. Retrieved January 08, 2022, from <https://v2.wellcertified.com/en/community/overview>
- Jeong, Y. W., & Lee, S. J. (2010). Utilizing an Office Building of Public Institution for Activating the Communities of Innovation City - Focused on the Facility Type and Scale.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1(1), 91-102.
- Kim, J. H. (2020, October 21). What do the vegetables grown at the subway station taste like? 5 “Metroparm” places. *Seoul in my hands*. from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99498>
- Kim, Y. W., & Choi, J. P. (2011). A Study to Utilize Unused Spaces in Metropolitan Subway Stations through Typological Analysis. *Journal of Korea Facility Management Association*, 6(1), 49-56
- Lee, J. M. (2021). The Types of Mixed-Use Community Spaces as a Social Infrastructure to Revitalize a Local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he Spatial Design*, 16(3), 169-178.
- Lee, S. J. (2019, March 14). Noksapyeong Station, Green Art Space with Gardens and Art. *landscapetimes*.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2259>
- Lee, Y. J. (2020).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dle space in subway station : Plan for cultural space in Hongik University s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Lee, Y. J., & Woo, S. H. (2019). A Case Analysis on Utilization of Unused Space in Subway Station. *Proceeding for 2021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Fall Conference*, Vol.39, No.2 (pp. 172-175), Seoul, Korea
- OhJaemi (n.d.). About the theater. In *Ohjaemidong website*. Retrieved February 21, 2022, from <https://www.ohzemidong.co.kr/theater/intro.php>
- Ohjaemi (n.d.). Introduction. In *Ohjaemidong website*. Retrieved August 10, 2022, from <https://www.ohzemidong.co.kr/theater/intro.php>
- Park, J. K. (2021, February 17). Seoul Transportation Corporation on the edge of the cliff... The old subway station remodeling project has also been put on hold. *Korean economy*.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171545i>
- Seo, S. M., & Lee, J. M. (2013). Types of Convergence in Community Support Centers and a Comparison of Spatial Design Characteristics - Centering on Korean and Japanese Examples -. *A Journal of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11(3), 171-182.
- Seoul (2016, December 7). A trip to ‘Theme Subway Station’ with a single transportation card. *Seoul in my hands*. from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048411>
- Seoul (2019, May 24). Citizens’ Ideas Revitalize the ‘Idle Public Space’...Citizen’s Nuri Space Contest. *Seoul Official News*. from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4137>
- Son, J. S. (2021, November 10). Most of the shopping malls in subway lines 6 and 7 are vacant for 2 years. *Biz World*. Retrieved February 08, 2022, from <http://www.bizw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86>
- Sung, H. K. (2020, May 10). 14 subway stations in Seoul will be reborn as cultural and artistic stations. *Seoul Economy*.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P4YKMOQ>
- The Seoul Institute (2018). *Measures to utilize idle space at subway stations* (2018-CR-01-08). The Seoul Institute. <https://www.si.re.kr/node/62219>
- Yeongdeungpo Market station (n.d.). April Sweet Market. In *Market madang instagram*. Retrieved February 21, 2022, from <https://www.instagram.com/p/COMIevvp6UG/>

[논문접수 : 2022. 10. 31]  
[1차 심사 : 2022. 11. 28]  
[2차 심사 : 2022. 12. 09]  
[3차 심사 : 2022. 12. 29]  
[게재확정 : 2022. 12. 29]

13) Seoul (2019, May 24). Citizens’ Ideas Revitalize the ‘Idle Public Space’... Citizen’s Nuri Space Contest. *Seoul Official News*. from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4137>